마음이 없는 물질은 공덕이 될 수 없습니다

☞ 17면에서 계속

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풀이 돼서 아주 남을 해치는 수가 많다. 또 한 가지는, 곱게 따뜻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위하는 생각도 없고 또 그렇게 견디어 보질 않았기 때문에 볕에만 나가면 그냥 스러져 버리는 이런 형국의 일생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들어라.

"부모다 자식이다 할 것도 없다. 혼자 왔다가 혼자 옷을 벗고 바로 다른 팀으로 또 옮긴다. 다른 팀으로 옮겨서 모습을 바꿔서 또 같이 모여서 산다. 그러니까 절대로 울지 말라. 값싼 눈물을 흘리지 말고, 값비싼 눈물 한 방울이라는 거는 온갖 눈물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값싼 눈물이라면 그것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말라 버리고 만다." 하는 말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울다가 울음을 뚝 그치고 그랬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도 머리에 연연히 스쳐 갑니다. 내가 이날까지 용기를 얻고 이렇게 나간 것도 바로 그 덕입니다. 나는 쓰러지면 그 노래를 불렀죠. 만날 얘기하던 그 노래 말입니다. 몇몇 해던가. 연자방아가 돌고 돌아서, 물방아가 돌고 돌아서 끊임없이 한강이 흐르듯 말입니다. 얼마나 울었던가, 끊임없는 그 길을…. 그러나 아버지의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쓰러진 그 몸을 다시 일으켰노라 하는 것 말입니다. 어떤 아버지든지 내 아버지 아닌 것이 없거든.

이거는 옛날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거니와 그 여인의 일생도, 어린애를 낳아서 남편과 같이 길러도 뭐하다는데 이건 남편도 쫓겨 다니고, 그것도 그대로 두는 것만도 아냐. 붙잡아다 고문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엉덩이를 질질 끌면서, 이리 곪아 터지고 저리 곪아 터지니 그거는 정말이지 있을 수 없는 한 여인의 일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나가 다 생각할 때 작고 크고 그것뿐이지 여자나 남자나 그렇게 살을 에어 가는 일생이 있는가 하면 아주 따뜻한 일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생들에 같이 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내가 만약에 그 그릇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담을 그릇이 없었을 텐데, 그 눈물 한 방울의 창고로서 그릇을 비웠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담아도 두드러지지 않고 그 눈물을 다 퍼내도 줄지 않는 바로 그 그릇을 얻지 않았는가. 그 그릇도 세울 게 없는 것을….' 하면서 중얼중얼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저한테 보여 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그릇을 비우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을 나한테 보여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아픈 줄 몰랐을 겁니다. 내가 아파 보지 않았더라면, 참다운 눈물을 흘려 보지 않았더라면 그 눈물, 그 참다운 눈물, 참눈물을 몰랐을 것이며 또는 그 쓰라림을 아마도 세세히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의 말만 듣고 이렇게 그냥 보고 넘기고 듣고 넘기고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실천으로 옮겨서 그렇게 아주 살을 에어 가듯 다져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는 실천은 아마 더없는 자기의 교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나에게 용기를 얻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아하, 그렇게 이어 가는 그 사람네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그 배고픔을 같이할 수 있다면 이 몸뚱이가 보이지 않고 가루가 된들 어찌 같이 안 하리.' 하고서 거기에서부터 용기를 얻었고, 자면서도 잠이 안 오고 꿈을 꾸느라고 잠자는 거와 마찬가지로 밤을 새웠고, 그래서 가다 보면 쓰러지기도 하고 어느 때가 됐는지도 모르게 또 한참을 지나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참답게 나갈 수도 있는가 하면 마구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 아무렇게나 그냥.

그래서 그 참다운 내 주장심이 아주 사람 죽이는 무서운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무서운 칼이 아주 연하고 잘 드는 칼이 돼서 여러분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으로서 중력을 잃지 말고, 남의 말을 들어서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내 중심에 의해서 살아라 이거야. 언제나 내 중심, 그 한마음 한 점 속에 일체 만물만생이 다 거기에 있고 그 일생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이 돼 봐야 보살의 행을 할 수 있지 부처님이 되지 않고야 어떻게 보살행을 하며 법신의 행을 하며 모든, 즉 말하자면 자비의 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는 업이고, "네가 한 것이 이렇게 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보살행을 못 합니다. 이것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줄 수만 있는 거, 그게 보살행이며, 줄 수 있을 때에 업이 많아서 주지 못한다는 그것에도 걸리지 마시란 얘깁니다. 업보가 많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에도 걸리지 말고, 업에도 걸리지 말고, 그 법에도 걸리지 말고 아무것에도, 아무것에도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알면 죄를 짓겠습니까?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느 누구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는 대로 본래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본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그게 업이라면 부처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쓰라림을 겪어 오면서, 또 잘못해 가면서, 잘못한 거를 회개를 해 가면서 살아가는 도중에 부처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쁘다 좋다 하고 '당신은 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데 그것에도 걸리지 마시고, 내 성심껏 내 가정에 어떠한 지탄이 없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큰 폐단이 없다면 내 성의껏 시주도 하고…. 내 성의껏 하지 내 가정에 폐단을 가지면서까지 시주를 하는 것은 그건 모든 게 걸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가 정성이 지극하면, 지성이면 감천이야. 우리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로써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마음이 없는 물질은 공덕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을 수차에, 설법이라기보다도 아마 아픔에서 수차에 걸쳐서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죠, 어느 사람한테. 보니까 공부도 할 만합니다. "삼십만 원을 시주하시오." 그러니까 삼십만 원을 가져오더라고. 삼십만 원을 가져오니까 삼천만 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하는 음미를 한번 해 봤으면 좋으련만 거기에 걸려 버린다 이거야, 누구든지. '삼' 하면, 즉 말하자면 삼심이 한데 합쳐서 일심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일심도 바로 놓는다면 백이 됩니다. 또 천이 됩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날더러 내 길잡이가 이렇게 말을 했죠. 너는 삼천만 원을, 아니 삼억만 원을 해도 그것을 다 못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마음 한 점에, 삼억이라도 그 마음을 당해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죽음과 삶을 버리는 데서 내가 시주를 삼억을 했든지 삼십억을 했든지, 십억을 했든지 천만 원을 했든지 몇천만 원을 했든지 또 단 십만 원을 했든지 걸림 없이 무주상으로 했다면 그게 공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일생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예전에 그렇게 했을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걸었을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그렇게 걷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을 볼 때…. 나는 스스로서 걸치는 거 하나 없이 남에게 주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 절을 짓고도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붙드는 것도 없이 어디든지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습니다. 왜? 나만이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걸리지 않고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면 뭐가 걸립니까? 내 생명과 더불어 다 팽개치는 이상에는 하나도 못 할 일이 없습니다. 걸리는 일도 없고 못 할 일도 없습니다. 항상 내가 살려니까, 내가 살아야겠다, 생명이 위대하다, 뭐다 뭐다 하고 붙으니까 걸리는 게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공에 모든 것을…, 주인공이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김가면 김가, 박가면 박가, 그 성이 바로 여러분의 한마음의 한 점이라는 것만 아시고, 만약에 거기다 모든 걸 맡겨 놓고 사신다면, '들이고 내는 것도 바로 박가가 들이고 내는구나.' 하고 '들이고 내는 것도 김가가 들이고 내는구나.' 아, 누가 했어, 여직껏! 그런 거니까 거기에다가 모든 걸 맡겨 놓고 '네가 한 거니까 네가 해결해.' 하고선 다 맡겨 놓는다면 바로 그릇은 홀랑 빌 겁니다. (녹음 안됨) (중략)

그래서 남의 말은 듣지 마라 이거야. 내 중심에서 오관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에 이게 적합지 않다면 적합지 않은 걸로 밀고 나가고 적합하다면 적합한 걸로 밀고 나가고, 적합지 않다 하면 건너질 마라 이거야. 뛰지 마라! 듣지 마라! 욕심부리지 말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면, 자기의 분수에 넘친다면 언제나 해로움을 당해. 개천을 건너뛸 때도 내가 건너뛸 만해야 건너뛰는 거지, 건너뛰지 못할 데를 턱 건너다가는 한쪽 다리가 물에 빠져. 그러니 인생살이 모두가, 한 걸음이 자체가, 일생 동안에 이 모습의 꺼풀을 쓰고 한 일생이, 짧은 한 기간이 그렇게 처참하더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부처님 법이 우리 떠나서 어디 있겠습니까? 밥을 떠 놓고 떡을 해 놓고 빌었던들 그 참다운 한마음의 한 점의 그 광대한 법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밥 한 그릇을 놓고, 죽 한 그릇을 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이 그 수많은 배고픈 사람과 같이 먹는다면 아마 그 죽 한 그릇은 되남을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성껏 시주를 하라고도 하고 또 열심히 이 도리를 배우라고도 하고 그럽니까?" 이러겠지만 사람이 내 욕심만 채워서 되는 게 아냐. 욕심을 덜어라 이겁니다. 내 것만 아낄 줄 알고 내 것만 있는 줄 알지 말고. '내가 살고, 내 거고, 모두 내가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남을 원망하게 되고 또 조상 탓을 하게 되고 참다운 나를 못 봐.

모든 것은 일체 자기 탓이고 자기가 났기 때문이야. 이런 말을 여러분 앞에 해 드리죠. 그러니 모든 것은 각자 나로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일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강도가 들어서 칼로 찔러 죽이고 또 찌르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물품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건 내 탓이지, 도둑질하는 그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정을 모르기에 그렇지, 사정은 사정대로 있기에 그렇습니다. 자비라는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값싼 사랑, 애정 이런 데서 자비라는 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참답게 죽고 사는, 또 아주 쓰라리고 아프고, 또는 따뜻하고 좋고 이런 걸 한데 합친 그것을, 균등을 잡아서 나갈 수 있는 이 우주의 근본 한 점의 바로 그 원리를 아주 값비싼 한 방울의 눈물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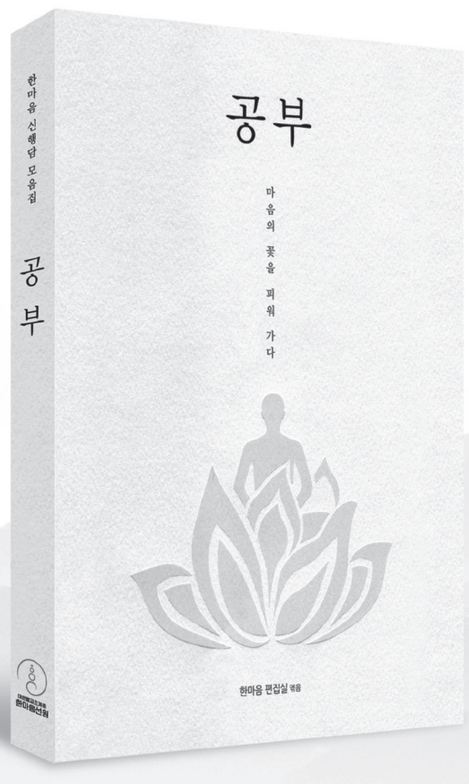
사랑을 하려거든 몽땅 다 주십시오. 하나하나 '내 거, 네 거' 이러면 다 얻질 못합니다. 몽땅 다 주신다면 몽땅 다 서로가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몽땅 다 내 것이고, 몽땅 다 나 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 서로가, 내가 그분의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그분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내가 될 수도 있어야 이 우주 섭류의 근본을 알아서 서로 진짜 물질 아닌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더불어 다섯 가지의 오신통을 그대로 부리면서 우리는 참다운 대장부로서의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생을 오늘 얘길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일생도, 그렇게 지내는 일생도 '야, 인생이 살기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며 사시는데, 그것보다 더 아프고 쓰리고 살을 칼로 짝짝 에어 가는 아픔을 느끼면서 사는 일생도 있으니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이것이 설법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살이가 아니라면 설법이 어디 있고 또는 부처님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 우리가 없고 부처 따위가 어딨습니까? 예?

> 한 길을 한 걸음 쓰라림을 겪어 오면서
> 또 잘못해 가면서
> 잘못한 거를 회개해 가면서
> 살아가는 도중에 부처가 나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86년 5월 6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